

억양, 발음과 세계의 영어 학습자

배리 웰시(Barry Welsh)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1. 서론

모국어(First language, L1)의 억양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화석화(Fossilization)’¹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 다시 말해 모국어의 억양으로 발화하는 영어가 본질적으로 원어민의 영어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비원어민이 원어민과 유사하게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틀림없는 언어 제국주의적 강요이다.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전문 지식의 수준에 다다르기 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독특한 억양을 다듬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약 이해를 방해할 만큼 지속적으로 억양과 발음이 문제된다면 이에 대한 대처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면 억양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국제적 의사소통 속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억양에 즐거워해야 하지 않을까? 이상적인 형태의 영어가 있더라도 하듯 모국어의 억양을 고치고자 하는 태도는 제국주의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매우 지역주의적인 영국에서는 영국 내 사람들도 때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¹ 외국어 학습자가 외국어를 습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특정 언어 항목이나 규칙이 잘못 습득되어 그대로 정착되는 현상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물론 어떤 학생이 외교관이나 경영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유창함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필요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관점이 특정 학계에서 늘어나고 있다. 제니퍼 쟁킨스 [Jennifer Jenkins(2000)]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세계 대다수의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 화자가 원어민 억양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항목을 ‘오류’라고 완강하게 치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 대신 모국어 구사자가 자신의 수용적인 규칙을 바꾸고 자신의 기대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원어민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진실이란, 21세기의 국제적 의사소통에 참가하려 할 때 그들 역시 국제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IL)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160쪽).

2. 제니퍼 쟁킨스와 공통어로서의 핵심(Lingua Franca Core) 사례

쟁킨스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강사 겸 연구자로 음운학, 음성학, 세계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현재 공통어로서의 영어를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공통어로서의 영어 교육에서 역사적인 초점, 즉 원어민의 발음을 학습시키는 교육의 초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어민 화자의 억양을 모방하며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통어’라는 용어는 통상 “그들에게는 제2 외국어가 되는, 모국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정의된다[Jenkins(2000), 371]. 이에 따라 영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통어라고 정의된다.

[공통어로서의 영어는] 공통된 모국어나 공통된 (국가) 문화도 공유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위해 선택한 외국어가 영어인 사람들 사이의 “접촉 언어”이다. [Firth(1996), 240]

젠킨스(2002)는 영어가 전 세계로 퍼지고, 영어 학습자와 구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통어로서의 영어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의사소통에서 현재 영어를 사용하는 비영어민이 원어민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음운 규범과 ‘표준 영국 발음’ 또는 ‘표준 미국 발음’과 같은 확립된 발음 모형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외국인’처럼 말하며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사들이 자주 채택하던 교육 모형은 원어민의 억양에 가까운 발음을 충분히 가르치는 것이었다. 영어 교사들은 학습자의 대상 언어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원어민의 억양을 가르쳤다[Jenkins(2002)].

공통어로서의 영어 학습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의사소통이 그 학습 목적이다. 대상 사회는 원어민 사회가 아닌 것이다.

이는 모든 참가자가 평등한 회원의 권리를 갖는 국제 사회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 주장의 본질은, 구사자의 억양이 국제적인 이해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이런 억양을 통해 그들의 모국어 지역 그룹의 정체성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Jenkins(2002), 85].

젠킨스 모형(2002)은 학습자의 ‘중간 언어(interlanguage)’²를 모국어의 자연스러운 억양 때문에 화석화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만약 이 모형을 받아들인다면, 영어 교육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² 외국어를 학습 중인 사람이 표현하는 언어 체계로서, 관련 외국어 요소와 학습자의 모국어 요소가 혼합된 형태

하지만 공통어로서의 영어가 필요한지부터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쟁킨스는 공통어의 필요성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면서도 공통어로서의 영어는 영국 영어가 유일하게 유효한 표준 영어라는 가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원어민이, 모든 학습자가 지향해야 할 유일한 모형이라는 개념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영국 중심의 영어에 대한 관점에 대안을 제시한다. 모든 다양한 형태의 영어가 동등한 인식과 지위를 얻게 되는 더 민주적인 접근 방식이며, 그들 사이의 차이는 문화 변용과 토착화의 결과이다[Saraceni(2009), 176].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영어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나 인식(패러다임)의 전환을 대표하는 것일까? 쟁킨스(2002)와 그녀의 지지자들[Seidlehofer(2004)]은 공통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요점에 근거하여 주장한다.

1. 영어 비원어민의 수가 원어민보다 더 많다.
2. 영어 원어민은 더 이상 언어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3. 영어, 영국 영어, 미국 영어(혹은 그 밖의 다양한 ‘모국어’로서의 영어)는 이외의 외부 집단 국가에 속하는 전 세계 영어 학습자와 관련된 모형을 대표하지 않는다.
4. 영어 원어민은 더 이상 언어에 대한 유일한 진실의 보고 혹은 언어 교사의 기본 사항으로 간주될 수 없다.
5.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구분은 무의미하고 도움 되지 않는 것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6. 영어가 앵글로·색슨 문화에서 추상화되어 감에 따라 영어 교육 및 학습의 문화적 요소는 다른 (지역적 또한 국제적) 문화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이어서 미국이 영어권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다. 이어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

영국과 함께 ‘내부 집단(inner circle)’ 영어 구사자를 형성한다. 이른바 ‘내부 집단’ 국가들 안에서 영어는 모국어로서 인구 대다수가 구사한다. 이 나라들의 영어 구사자는 전체적으로 3억 명 이상이다[Graddol(1997)].

영어 구사자의 ‘외부 집단(outer circle)’도 있다. 이 외부 집단의 대부분은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을 일컫는다. 이런 수많은 국가들은 영어를 헌법상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다[Graddol(1997)]. 이들 국가에서 영어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 기관 및 정부 기관에서 공동으로 쓰이는 모국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인도에서 공부하거나 싱가포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트리니다드에서 신문을 읽는 것은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다. 물론 소리나 표현의 선택은 시엔엔(CNN)이나 비비시(BBC)에서 듣는 것과 매우 다를 수도 있다[Van Den Hoven(2005), 12].

인용문이 시사하듯이 영어에서 원어민이 사라지면 억양과 발음의 문제가 드러난다. 외부 집단 국가에서 쓰이는 영어의 종류는, 내부 집단 국가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몇 가지 단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덜 타당하게 인식된다. 외부 집단 국가 화자의 억양은 이렇게 제거된 단계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외부 집단 국가 화자의 억양은 역사적으로 불완전한 것, 원어민 억양의 수준 이하의 시도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여겼다. 이런 다른 종류의 영어를 인도 영어 혹은 나이지리아 영어로 지칭한다. 즉, ‘진정한’ 영어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영어를 자생 혹은 토착화한 영어, 심지어는 비원주민의 영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방식의 꼬리표를 붙이면서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타당성에서 유일하고 최우선 지표가 되는 ‘원어민성’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준다.

비원어민 영어의 혁신적인 부분은 그들의 존재나 내적 기능이 아니라 흔히 그들이 원어민 영어 표준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Bamgbose (1998), 1].

원어민 영어는 다른 모든 영어가 피할 수 없는 척도인 것처럼 여겨 왔다. 반면 외부 집단, 비원어민이 구사하는 영어는 비교적 잘 알려지고 받아들여져 왔지만 ‘확장 집단’ 국가들에 대해서는 덜 알려졌고 덜 연구되었다. 이들에 대한 더 많은 학문적 연구 주제가 고려되어야 한다.[Crystal(2003)].

세기의 전환기 이래로, 이른바 확장 집단의 영어 구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어느 정도 영어를 사용하지만 영어 사용 국가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 확장 집단은 남은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망라한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그리고 유럽의 많은 곳들이 포함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나라들의 영어 구사자를 10억 명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외부 집단 국가들이 토착화된 영어의 실행 규범을 확립한 것에 비해, 확장 집단 국가들은 현재 그들이 어떤 영어를 사용할지를 협상하는 과정에 있다 [Crystal(2003)].

쟁킨스의 지지자인 바르바라 자이들호퍼(Barbara Seidlhofer)는 세계 영어가 절묘한 균형 상태에 있거나, 혹은 물리학자들이 부르는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 영어 사용자 대부분은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언어의 표준은 여전히 그 언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이들의 통제에 머물러 있다[Seidlhofer(2004), 209].

그녀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영어를 제2 언어 혹은 외국어로 사용하는 대화의 약 80%에 영어 원어민이 관여되지 않는다.”(209쪽) 그런 의미에서 그래돌[Graddol(1997)]은 “원어민은 원어민의 영어가 그들의 ‘소유물’이

라고 느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어는 제2 언어 혹은 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으며, 그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Graddol(1997), 10].

바로 여기서 공통어로서의 영어가 나타날 차례이다. 원어민 화자 모형의 관련성 저하는 공통어로서의 영어를 체계화하거나 통합시켜서 채워야 할 개념적인 차이를 남겼다. 이는 확실히 전례 없는 상황이다. 원어민이 아닌 비원어민이 언어를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어로서의 영어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도 같다. 원어민은 공통어로서의 영어를 탄생시켰지만, 이것은 그들의 통제를 훨씬 벗어났다. 언어 형성 과정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전 세계 비원어민 사용자들이 언어의 변화를 강하게 가속화하고 있다. 원어민이 확립한 규범은 종종 확장 집단 사용자에 의해 무시되기도 한다[Crystal(2003), Graddol(1997)].

젠킨스(2002) 및 자이들호퍼(2004)는 비록 이 세계적인 현상이 거의 인정받지 않고 있더라도 언어 자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들은 비원어민 화자가 서로 영어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에 다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공통어로서의 영어 스스로가 언어적 현상이라고 단언하고 싶어 한다. 자이들호퍼는 영어 교육 교수법에서 네 가지 쟁점을 들고 있다.

1. 원어민 화자의 패권적 규범을 존중하는 모든 문맥에서 의문을 제기
2. 서로 다른 사회의 다양한 사용 방법에 대한 합리성 강조
3. 영어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사고방식과 언어학적 영향을 추적할 필요성 강조
4. 설명 및 체계화의 필요성 인정[Seilhofer(2004), 214]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 공통어로서의 영어가 본질적으로 모국어 억양을 사용하는 화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해서 발음에 대한 모든 것을 수

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어 사용자들의 막대한 다양성이 상호 이해와 명료성의 붕괴와 분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

거대한 공포가 있다. ... 영어는 세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특히 너무 많은 비영어권 화자의 사용으로 인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언어는 점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결국은 이질적인 언어로 매우 빠르게 분리될 것이다[Jenkins(2002), 86].

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영어 사용자 사이에서는 발음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언어학적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억양과 정체성 사이의 본질적 연결로 더욱 악화된다. 이 암울한 전망은 이러한 차이가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학습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

3. 공통어로서의 핵심(Lingua Franca Core, LFC)에 대한 논의

공통어로서의 핵심은 원어민의 발음이 아닌 명료성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룬다. 원어민의 발음이 아닌 명료성에 주목하는 이러한 입장은 다른 몇몇 강력한 주장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레네버그[Lenneberg(1967)]는 사춘기 동안 발생하는 임계기를 확인했다. 임계기는 언어 습득에 필요한 자극을 주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최대로 확립되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기간이다. 크래션[Krashen(1973)]은 후에 이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의 연구에서 원어민과 같은 발음은 생물학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다고 시사한다. 그러므로 이런 발견에 비추어 볼 때 교사와 학생들이 원어민 억양과 발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여겨질 수 있

다. 따라서 명료성이 발음 교육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통어로서의 핵심은 학습자가 능숙한 원어민 화자를 본보기로 삼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로 명료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공통어로서의 핵심을 옹호하는 두 번째 관점은 이것이 수많은 원어민 화자가 구사하는 영어보다 비원어민 화자가 구사하는 영어의 명료성을 향상시키는 데 잠재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몇 가지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비원어민 화자의 영어가 원어민보다 비원어민에게 더 쉽게 이해된다고 밝혔다 [(Smith·Nelson(2006)). 모국어 억양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반드시 이해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Munro·Derwing(1995), (1999)]. 어떤 연구는 비원어민 화자에 의한 낮은 명료성 평가가 음운과는 거의 혹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태도, 관용, 인식과 더 깊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Matsuura et al.(1999), Rajadurai (2007)].

젠킨스(2007)이 소개한 공통어로서의 핵심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비원어민 억양의 검증에 관련된 것이다. 공통어로서의 핵심은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제2 외국어 화자에게도 동등한 사회 언어적 권리를 부여한다. 발음에 관한 차이를 수용할 것을 촉진하며, 학습자에게 영어를 사용할 때 그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명료한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제2 외국어의 기능에 제2 외국어 화자가 집중하도록 하며, 그들 모국어의 명료한 기능을 유지하고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학습자에게 국제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원어민의 발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공통어로서의 핵심은 주장한다. 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제1 언어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일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더욱 높은 목표는 모국어 억양의 특징을 일부 유지하면서 국제적으로 이해 가능한 영어의 발음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공통어로서의 핵심은 원어민의 억양이나 발음 규범보다 명료성을 권장하는 음운적 교육 계획서이다. 이것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영어를 배우거나, 배울 필요가 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억양을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억양은 만날 가능성이 낮은 ‘타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공통어로서의 영어 사용자는 원어민 사용자를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서로를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비원어민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및 아시아인이 단지 원어민의 억양을 가지지 않았거나 원어민들조차 종종 무시하는 문법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진정한’ 영어 화자가 아니라고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원어민의 억양을 모방하는 것이 비원어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대화 상대가 누구든 의미의 교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어로서의 핵심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교육 모형을 제공한다.

공통어로서의 핵심은 음운적 교육 계획서를 제공하며 이를 수행한다. 그 목표는 방대한 수의 비원어민들을 위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공통어로서의 영어 음운론에 대한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달성 가능한 접근 방식이며, 무엇³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⁴을 학습할 수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영어 한 가지만을 구사하는 원어민이 소외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노 촘스키(Noam Chomsky)는 다른 몇몇 언어학자와 이런 구상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 제목은 ‘원어민은 죽었다.’였는데 이 제목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저자의 죽음(The Death

³ 예를 들어 핵 강세 배치(nuclear stress placement) 등

⁴ 예를 들어 음의 높이의 변화 등

of the Author)’이라는 문학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독자가 저자보다 글을 이해하는 데에 더 중요하다는 포스트모던적 입장을 내세웠던 유명한 수필에 대한 토론과 관련이 있다. 영어 교육은 현재 오래된 모형과 구상이 통용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으며,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통일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포스트모던적 단계에 있다. 공통어로서의 영어와 공통어로서의 핵심은 이 빈 자리를 채울 수도, 혹은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바르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의 수필 〈저자의 죽음〉에서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78쪽). 비영어민 화자의 탄생 역시 영어민 화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Ali, S.(2009),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EIL) in the Gulf Corporation Council(GGC) countries: The Brown Man's Burden. In Sharifian, F.(ed.),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Perspectives and Pedagogical Issues》,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Bamgbose, A.(1998), Torn between the norms: innovations in world Englishes, 《World Englishes》 17, 1~14쪽.
- Barthes, R.(1978), 《Image Music Tex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Bent, T. and Bradlow, R.(2003), "The Interlanguage Speech Intelligibility Benefit", 《Journal' of the Acoustic Society of America》 114, 1,600~1,610쪽.
- Crystal, D.(2003),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rth, A.(1996), The discursive accomplishment of normality. On 'lingua franca' English and conversation analysis, 《Journal of Pragmatics》 26, 237~259쪽.
- Graddol, D.(1997), 《The Future of English?》, London: British Council.
- House, J.(1999), Misunderstanding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eractions in English as a lingua franca and the myth of mutual intelligibility. In C. Gnutzmann(Ed.),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Tübingen: Stauffenburg, 73~89쪽.
- Jenkins, J.(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enkins, J.(2002), A sociolinguistically based, empirically researched pronunciation syllabus for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23, 83~103쪽.
- Jenkins, J.(2007), 《English as a Lingua Franca》, Oxford: Oxford

- University Press.
- Jones, D.(1918), 《The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Michigan: Heffer.
- Krashen, S.(1973), “Lateralization, Language Learning, and the Critical Period: Some New Evidence”, 《Language Learning》 23-1, 63~74쪽.
- Lenneberg, E.(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Wiley.
- Matsuura, H.·Chiba, R.·Fujieda, M.(1999), “Intelligibility and Comprehensibility of American and Irish Englishes in Japan”, 《World Englishes》 18-1, 49~62쪽.
- McCrum, R.(2010), 《Globish: How English became the world’s language》, New York: W. W. Norton.
- Munro, M.·Derwing, T.(1995a), “Foreign Accent, Comprehensibility, and Intelligibility in the Speech of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learning》 45-1, 73~98쪽.
- Munro, M.·Derwing, T.(1999), “Foreign Accent, Comprehensibility, and Intelligibility in the Speech of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learning》 49 (Supp. 1), 285~310쪽.
- Rajadurai, J.(2007), “Ideology and Intelligibility”, 《World Englishes》 26-1, 87~98쪽.
- Samarin, W.(1987), *Lingua franca*. In U. Ammon, N. Dittmar, & K. Mattheier(Eds.), 《Sociolinguis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the science of language and society》, Berlin: Walter de Gruyter, 371~374쪽.
- Saraceni, M.(2009), *Relocating English: towards a new paradigm for English in the world*, 《Language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9-3, 175~186쪽.
- Schmitz, J. R.(2012), “To ELF or not to ELF?”(English as a *Lingua Franca*): That’s the question for Applied Linguistics in a

- globalized world, 《RBLA, Belo Horizonte》 12-2, 249~284쪽.
- Seidlhofer, B.(2004), Research Perspectives on Teaching English as a Lingua Franca,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4, 209~239쪽.
- Smith, L. · Nelson, C.(2006), World Englishes and Issues of Intelligibility. In Kachru, B., Kachru, Y. and Nelson, C.(eds.), 《The Handbook of World Englishes》, Oxford: Blackwell.
- Sobkowiak, W.(2005), Why Not LFC? In Dziubalska-kolaczyk, K. and Przedlacka, J.(eds.), 《English Pronunciation Models: A Changing Scene》, Oxford: Peter Lang.
- Van Den Hoven, M.(2005), Whose English Should We Teach?, 《The English Connection》 9-4.
- Yamaguchi, C.(2002), Towards International English in EFL Classroom in Japan, Retrieved October 29th, 2012 from the World Wide Web(<http://iteslj.org/Articles/Yamaguchi-Language.html>)